

옥구중학교

나를 존중하며
남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사람

옥 구 슬 신문

홈페이지 : www.okgu.ms.kr

금산시 대야면 만리로 60번지

교 장 : 추창훈

교 감 : 서신영

교 목 실 : 451-2946

행 경 실 : 451-2906



표지사진: 이창 기자

-옥구중학교의 뉴페이스! 새로 부임하신 선생님들 인터뷰 (hot!hot!)

-특수반 이광해 선생님이 옥구중 학생들에게 전하는 말

-선생님들의 옥구슬 신문 창간 축하

-외국어랑 친해져볼까?

-설문조사, 옥구중학교의 학생들의 이상형은?

-신입생 짧은 인터뷰, 옥구중학교 어떤가요?

-지역사회연계 특집 기사, 대야의 명소를 찾아서 (대야오일장)

-옥구중학교 학생 작품 소개

-1학년 기자들의 일일 학교 생활 기록

-동아리 소개, OKNP를 소개합니다

Q.옥구중학교 학생들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학생들이 착하고 인사성이 바르다.

Q.선생님만의 잘생긴 비법은?

A.태어났을때부터 타고난 것도 있고^^, 마스크 덕분이라고생각합니다.

Q.옥구중학교 선생님들의 첫 인상은?

A.따뜻하고 친절하시다 .

Q.선생님의 취미 생활?

A.음악 듣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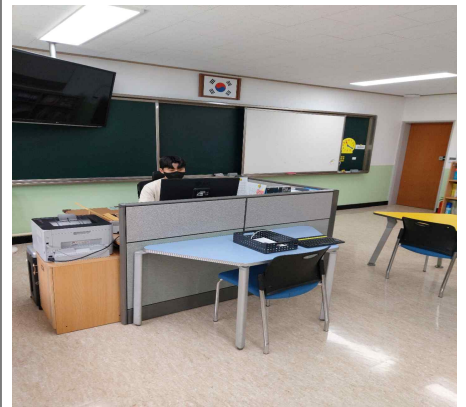
Q.첫사랑?

A.와이프(아내)

Q.중학생 때의 나는? 지금 옥구중학교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A.옥구중학교 학생들에게 꿈이 있다면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옥구중학교 (특별반) - 이광해 선생님



Q.옥구중학교만의 장점은?

A.학생 수가 적어서 선생님들과 학생 간에 친밀한게 좋다.

Q.옥구중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한 다짐은?

A.보건 업무를 맡아서 보건 업무 숙지 하고싶고 상담을 활성화 하고 싶다.

Q.옥구중학교 학생들의 첫인상은?

A.귀엽고 착하고 인사를 잘해준다.

Q.상담을 선택하신 이유는?

A.학생 때부터 친구들에게 상담하는 것을 좋아하고 커서는 아이들과 이야기 하는 것이 좋아서...!

Q.선생님의 이상형은(?)

A.동물을 좋아하고 훈훈하고 무쌍인 남자(느끼한거 싫음)

Q. 옥구중 선생님들의 첫인상은?

A.따뜻하고 웃고 있어서 나도 친근감이 느껴져서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

Q.취미는?

A.강아지 산책, 오버워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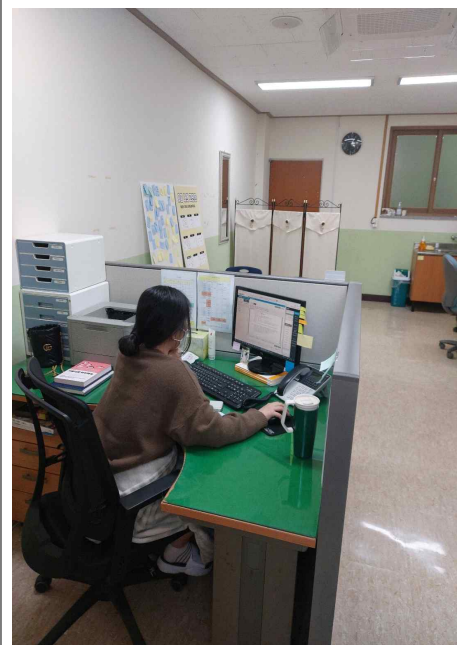
Q.학창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A.축제 밴드 때, 신이 났다

Q.옥구중학교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A.큰 고민 하지말고 편하게 상담실로 찾아와~ 그리고 보건교사는 아니지만 잘 치료해줄게^^

옥구중학교 (상담,보건) - 조류화 선생님



Q.옥구중학교에 오시게 된 계기는?

A.옥구중학교량 한들고의 새로운 교장선생님을 초빙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정한 역할, 즉 지역사회의 성장과 학생들의 학습,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옥구중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Q.학생들의 첫인상?

A.놀랐다. 표정이 밝고 차분하고 따뜻해서...요새 보기 드문 애들이 모여있다.

Q.옥구중 장점 ?

A.아직 잘 모르지만^^ 아이들이 선하고 성격이 좋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잘 보듬어 주시는 듯 하다.

Q. 선생님들의 첫 인상 ?

A. 한분 한분 따뜻하고 개별도 림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 또한 협의와 논의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어 너무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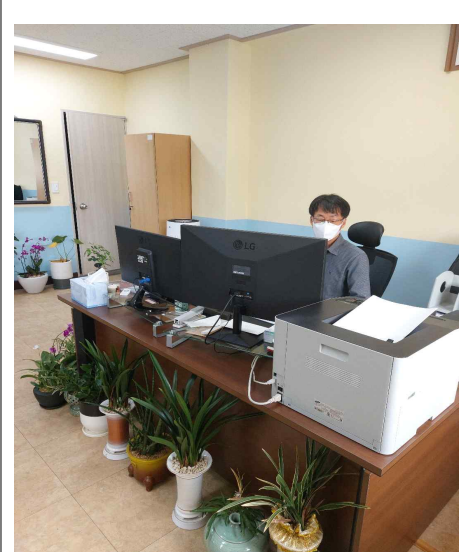
Q.교장 선생님의 취미나 특기는?

A.친절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며 표현하는 재능이 있는거 같다

Q.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A.(이탈리아) 베네치아입니다. 이유는 건축물이 몇백년이 지나도 보전돼있고 건물 사이사이를 배를 타고 움직이는데 그 풍경이 멋있었다. 그리고 베네치아 성당 앞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 그 근처에 있는 커피가 맛있고 일행하고 떨어져 성당안에 들어가봤는데 조용하고 멋있어서 기억에 남았다.

옥구중학교 (교장선생님) - 추창훈 교장 선생님



강성준 기자- 올해 새로 부임하신 선생님들도 원래 있었던 선생님들처럼 착하고 친절하셔서 인터뷰를 잘 끝낼 수 있었다. 옥구중학교는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선생님 말씀, 특수반 이광해 선생님

안녕하세요.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이광해 선생님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특수교육대상 학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학교에는 지적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는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와 일상생활에서 제한이 따르는 발달장애를 말합니다. 지적기능과 적응행동(일상생활능력)에 어려움이 있기에 비장애학생들보다 학습 수준이 낮고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 중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평소와 다르게 특별한 행동을 보인다면 아마 이런 이유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말을 반복한다면 되풀이하는 말의 리듬을 즐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혼잣말을 계속한다면 혼자서 소리의 울림 등을 이용하여 놀거나 소리를 내서 생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능력이 부족한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일수록 혼잣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친구들과 눈맞춤을 잘 하지 않는다면 대화를 어려워하거나 싫어하는 경우 눈맞춤을 더 싫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학교 안에서 어떤 일에 대한 변화를 싫어한다면, 일과가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면 안정감을 얻게 되지만 무엇인가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모와 형제를 선택해 태어난 사람은 없듯이 장애를 갖고 싶어 장애를 선택해 태어난 사람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비장애학생들에게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이해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만 부탁하고 싶습니다. 첫째,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지 먼저 물어봐 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먼저 인사하기 둘째, 내가 먼저 고운 말과 바른 말을 해 좋은 롤모델이 되어 주기

제 도움이 필요하면 1층 특수학급으로 오세요.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많이 들겠습니다.

옥구슬 신문 창간 축하

강미라 선생님

우리 학교 발전과 우리 학교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발굴하고, 즐거운 소식 전하는 까치같은 신문이 되길^^

이중호 선생님

우리 신문부가 만들어져서 우리 학교에 자람이 될 거 같고 너무 잘 될 거 같아요. 특히 우리 신문부 멤버들을 보니까 너무 기대되고 에이스들만 모인 거 같아요. 앞으로 잘 운영되고 재밌게 하기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유민 선생님

옥구중 신문부 발전을 기원

나경희 선생님

신문부 창단을 축하하며 우리 신문부 학생들 열심히 하는거 같아요. 앞으로 우리 옥구중에 꽃이 될거 같아요. 열심히 잘해주길 바랍니다.

이동현 선생님

신문부 창단을 축하드립니다. 지연샘과 2학년 학생들이 주축인거 같은데 앞으로 1기, 2기...10기까지 옥구중과 함께 영원히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소정화 선생님

축하하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

이광해 선생님

정말 축하

조류화 선생님

신문부와 같은 2021년도에 들어왔네! 같이 발전했으면 좋겠다.

TMI: 최병락 선생님 1000년뒤에 하신다고 하심

김윤비 기자-선생님들을 인터뷰하는데 조금 힘들었고 모든 선생님분들을 다 못해서 너무 아쉽다.

임지환 기자-선생님들이 너무 긍정적이셔서 너무 쉽게 인터뷰 할 수 있었다.



-你好[nǐ hǎo](니하오)와 您好[nín hǎo](닌하오)

여러분 제목에 나와있는 말들 모두 무슨 뜻이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인사말들 3가지의 차이점과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상대방과 어떤 사이일 때 써야 좋은지를 제가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你好[nǐ hǎo 니 하오]는 '안녕하세요'라는 의미이고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초면이든 구면이든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인사말입니다. 어느 때나 사용해도 이상하지 않는 말입니다. 영어의 hi, hello처럼 요

ex) 爷爷你好。(할아버지 안녕하세요.)

叔叔你好。(아저씨 안녕하세요.)

老师你好。(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아버지든 아저씨든 선생님이든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您好[nín hǎo 닌 하오]는 중국에서 몇 없는 높임 말 들 중 하나인데요. 의미는 '니 하오' 와 같이 '안녕하세요?' 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닌 하오' 는 상대방이 어른이나 회장님, 사장님 등등 높은 사람에게 인사할 때 '닌 하오' 라고 합니다. 그러니 '니 하오' , '니 하오 마' 라고만 하지 말고 '닌 하오' 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 总经理您好 (총정리닌하오) 사장님 안녕하세요

叔叔您好(수수닌하오) 아저씨 안녕하세요

뜻이 예쁜 영단어

1. Adorable 사랑스럽다

첫 번째는 adorable입니다. 이 단어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쁘다 귀엽다 등 adorable은 특징 하나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사랑스럽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2. Euphoria

두번째 단어는 euphoria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행복감, 희열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표면적으로 '행복'을 뜻하지만 실제로 이 단어를 사용해서 상황이나 기분을 표현하면 '행복'보다 훨씬 큰 의미를 뜻합니다. 이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지 않고 책이나 내레이션, 음악 등에 자주 나타납니다.

ex) 방탄소년단 - Euphoria



3. Luminous

세 번째는 luminous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빛이 나는'인데요. 더 깊이 표현을 하면 '어둠 속에서 빛나는'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사람보다 물건, 현상, 상황 등에 쓰이는 단어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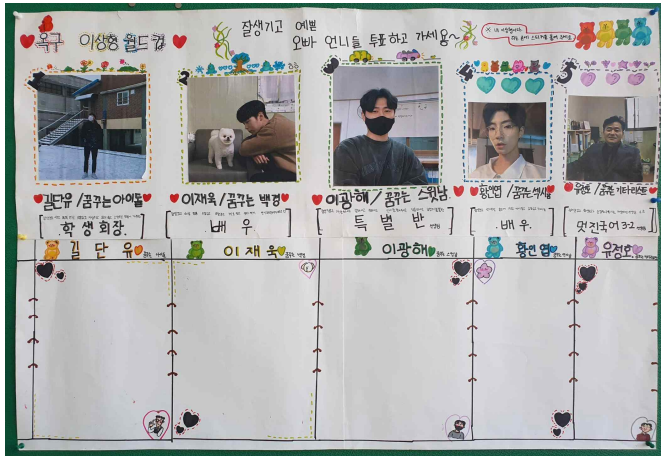
4. Idyllic

네 번째는 Idyllic입니다. 이 단어는 '소박하고 평화로운'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rural'이라는 단어와 같이 서정적인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에서 살다 답답한 마음이 들어 시골처럼 어딘가 조용한 곳으로 가고 싶을 때, 그 마음을 이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남궁지영 기자- 이 글을 작성하면서, 처음에 이런 기사를 쓸 생각도 못하고 그냥 평소처럼 회의를 하다가 [외국어랑 친해져볼까?] 파트를 맡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의 모습을 보여줄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모를만한 내용으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원들과 담당 선생님께 물어봤더니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제가 유일하게 남들보다 잘하는 중국어에 관한 기사를 쓰게 됐습니다. 처음엔 위에 기사보다 훨씬 길었는데요, 처음으로 보시는 중국어에 관한 기사이실 텐데 글자만 빼곡하게 있으면 싫어하실 것 같아서 수정하고 수정해서 위에 기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처음이라서 많이 서툴지만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기사를 다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오셔서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설문조사! 옥구중학교의 이상형은?

3월 30일 아침 등교 시간에 옥구중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이상형 월드컵을 해 보았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이 좀 더 친근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결과는 어떻게 되었을 까요?



투표 전



투표 후

투표 결과...

1등은 길단유 학생 49표

2등은 유정호 선생님 37표

3등은 이광해 선생님 13표

나머지 배우 이재욱은 9표 황인엽은 4표를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옥구중학교의 이상형의 영광은 길단유 학생이 차지했습니다!

1등하신 길단유 학생회장님 소감입니다

“연예인들이 후보에 있어 안될꺼라고 생각했지만 1등이 돼서 기분이 좋았다. 더 좋은 회장이 되도록 분발해야겠다^^*”

김윤비 기자-아침에 일찍오는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색다른 경험이었다.

소훈성 기자-이상형 월드컵에 쓸 스티커를 잃어버려서 난감했지만 매점에서 팔아서 다행이었다.

신입생 짧은 인터뷰!!



Q.옥구중학교의 좋은 점

A.급식이 맛있다, 동아리(방과후)가 많아서 좋다, 체험&경험할게 많아서 좋다, 선생님과 선배가 예뻐서 눈호강한다, 친구들이 많다, 시설이 깔끔하고 좋음, 선배들이 좋다^^

Q.제일 좋은 과목과 선생님

A.여러 가지 과목과 선생님들이 나오셨지만, 그중에서 과목은 국어, 선생님은 유정호 선생님이 제일 많이 나오셨다(인기남)

Q.우리 학교 급식을 별점으로 표시한다면?

A.5점 만점에 거의 4.5 아님 5점!!!

Q.학교에 바라는 점

A.선배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세요, 지금도 너무 좋습니다, 조금 더 좋은 학교를 만들어주세요... 등등 여러 의견이 나왔다.

김윤비 기자- 1학년들이랑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힘들었지만 좋았다.

특집 기사! 대야의 명소를 찾아서!

대야장 탐방기

매달 1일 6일(날짜 끝에 1, 6 숫자가 들어가는 날)에 열리는 대야장, 대야에 사시는 분, 군산이나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 모두 한번쯤은 가 보셨을 때 유명한 수목장입니다. 이 대야장은 1910년에 시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무려 111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짧지 않은 역사가 담겨져 있는 대야 오일장입니다. 이때는 군산은 물론, 익산과 김제, 전주에서도 장사꾼과 손님이 몰릴 정도로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우시장이 주가 되던 시절에는 수천 명이 모여들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국임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코로나 방역 수칙은 정말 잘 지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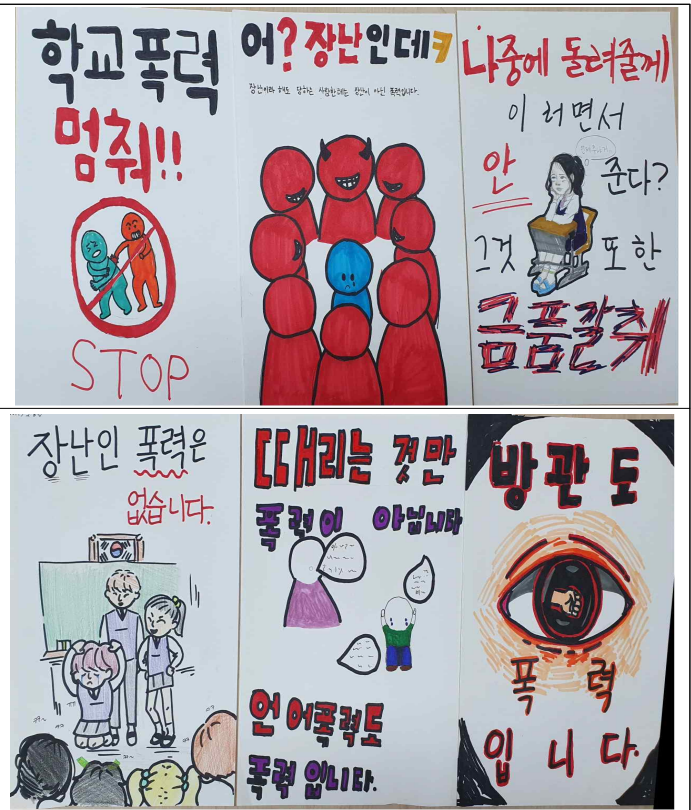


취재하기 전에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 전보다 사람들이 많이 안와서 취재 할 맛이 안 날 것 같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멀리서 트로트 노래도 나오고, 상인들은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려고 열심히 장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코로나로 침체된 분위기만 느끼다가 간만에 활기찬 시장의 분위기를 느끼게 되니, 덩달아 저역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든 상인들이 장사가 잘 되고, 또 손님들은 좋은 물건을 싸게 사서 군산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마음 속으로 소망해 보았습니다.

대야장에는 고추, 야채, 과일, 고기, 생선 뿐만 아니라 꽃무늬가 화려하게 그려져 있는 옷, 수제 신발, 장화 등 시골 감성이 아주 가득 가득 했습니다. 무엇보다 꽃이나 나무같은 식물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고, 그래서 그런지 꽃이나 나무를 사는 손님도 많았습니다. 제가 느낀 대야장은 힐링 명소였습니다. 도시보다 시골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대야장은 꼭 가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중간에 선생님이 오렌지도 샀는데요, 상인분께서 시식하라고 하셔서 먹으려고 했지만 코로나 시국이니 마스크를 내리면 안될 것 같아 오렌지 시식은 포기 했습니다...T.T)



남궁지영 기자- 처음에는 이번 대야장 취재를 신문부 부원들이 모두 다 같이 가려고 했는데...코로나 시국이다 보니...어쩔 수 없이 선생님과 신문부 회장, 부회장 셋이서 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첫 취재 기사였기 때문에, 가는 내내 사진만 찍는다는 생각으로 대야장을 돌아보지 않고 내용 비율을 어떻게 맞추것인가, 어떤 사진을 넣어야 이게 '대야장이지' 이라는 생각이 명확하게 들까, 라는 생각을 하며 대야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다녀서 정신도 없었던 터라 못 찍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서투른 면도 있지만 사진 한 장 한 장에 정성 들여가면서 찍고 서로 물건 들어주고, 대야장에 갔다 오고 학생과 선생님 사이의 관계가 더 친근해지고 좋아지게 될 계기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동아리에서 처음으로 쓴 기사들이기 때문에 많은 지지와 격려와 조언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글 실력이 많이 서투를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을 열어 이 기사를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어제보다 더 내일보다 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신입생의 하루

3월 22일 월요일 이환의 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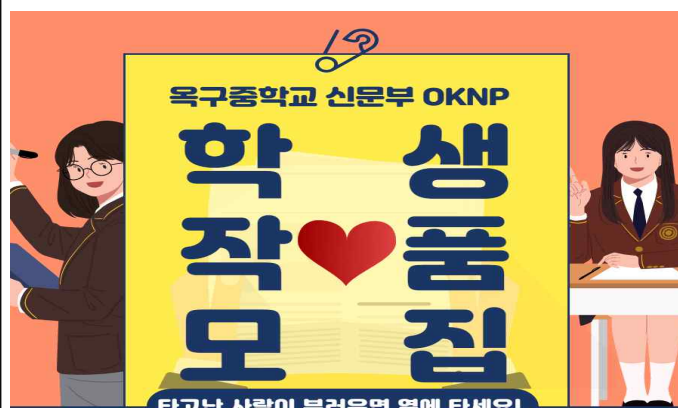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학교 갈 준비를 마치고 버스를 기다린다. 버스를 타고 대야 우체국에서 8시 15분 쯤 내린다. 내려서 학교까지 걸어가니 8시 30분이다. 학교에 도착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반납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이렇게 해본 경험이 없는데 처음 해본다. 좀 쉬다 보니까 벌써 수업 종이 쳤다. 8시 50분, 1교시는 영어이다. 영어 교실은 1층, 점점 더 교실 구분이 돼 가는 것 같다. 영어에서는 영단어 시험을 간단하게 봤다. 5개만 봤다. 당연히 100점, 왜냐하면 학원에서 미리 봤던 거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영어 수업을 시작했다. 영어는 be동사에 관한 공부를 했다. be동사의 의문문, 부정문을 배웠다. 배우고 나서 봤더니 종이 쳤다. 9시 30분 이다. 쉬는 시간에는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며 놀았다. 2교시는 사회다. 사회 시간에는 사회화를 배웠다. 사회를 집중해서 듣고 나니 벌써 10시 20분이다. 종이 치고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예습을 좀 한다. 그리고 나니 3교시다. 10시 30분 수업 종이 쳤다. 3교시는 국어다. 국어에선 '새로운 길'이라는 시를 다시 읽었다. 쉬는 시간에는 점심시간만 기다리면서 쉬는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나니 4교시 수업이 시작되는 종이 쳤다. 11시 25분이다. 4교시는 다시 사회다. 사회에선 사회화에 대해 조를 짜서 짧은 연극을 했다. 1, 2, 3, 4조 이렇게 하다 보니 4교시 수업이 금방 갔다. 나는 신나게 손을 씻으러 갔다. 그리고 친구들이랑 점심 먹으러 내려갔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신나게 애들이랑 놀았다. 그리고 나니 5교시가 시작되었다. 5교시가 되니 점점 잠이 오는 것 같다. 13시 30분 이다. 5교시는 진직이다 진직은 처음 접해보았다. 초등학교에선 진직을 배워 본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배워 본다. 진직은 알고 보니 진로와 직업이었다. 진로와 직업 수업은 나의 직업과 진로를 찾아가는 수업 이다. 오늘을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작성했다. 나는 꿈은 사진 작가이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고 썼다. 6교시와 7교시는 같다. 자 동이다. 나는 자율동아리 시간에 요리부 활동을 한다. 오늘은 코코넛 쿠키를 만들었다. 내가 직접 만든 코코넛 쿠키 4개를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과 나눠먹었다. 6,7교시 수업을 듣고 나니 거의 학교가 끝날 시간이다. 하지만 청소와 종례가 있다. 난 도서관 청소 담당이었다. 도서관에서 청소를 하고 나니 이제 종례만 하면 됐다. 정말 신나는 시간이다. 종례하고 핸드폰을 가져가고 1층으로 내려가는 시간이 가장 신나는 시간이었다.

3월 29일 시찬이의 하루

8시 40분에 조회 시간, 기억은 안 나지만 담임선생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해주셨다. 그리고 1교시가 시작되었다. 1교시는 영어다. 영어시간에는 동사와 일반 동사를 배웠다. 나는 영어가 어렵게 느껴졌다. 하지만 선생님이 재미난 게임을 통해 알려주셨다. 나는 그 게임에 승부욕이 넘쳤다. 하지만 다른 모습에게 지고 말았다. 그래도 영어 시간은 재미있었다. 1교시가 다 끝났다. 쉬는 시간에는 신나게 놀았다. 그리고 종이 컷다. 나는 바로 수업 준비를 했다. 2교시는 사회였다. 사회는 나에게 어려운 것 같다. 사회가 끝난 후 애들이랑 재미있게 게임 이야기를 했다. 게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나는 수업 준비를 하고 수업종이 울리기를 기다렸다. 수업종이 울린 후 선생님이 반으로 들어오셨다. 3교시는 국어였다. 국어는 내가 좋아하는 과목 중 하나였다. 그래서인지 재미있게 국어 수업을 한 것 같다. 재미있게 국어수업을 하다 보니 벌써 3교시가 끝났다. 곧 있으면 점심시간이 다가온다. 이제 4교시 종이 컷다. 4교시는 다시 사회이다. 사회시간에는 간단한 시험을 보았다. 시험을 보았는데 많이 틀려서 슬펐다. 시험이 끝나고 빙고도 했는데 잘 되지 않았지만, 재밌었다. 사회가 끝난 후 내가 좋아하는 점심시간이 왔다. 오늘 점심시간 나온 급식은 정말 맛있었던 것 같다. 잡채하고 등갈비가 정말 좋았다. 오늘 급식은 천상의 맛이였다. 나는 급식을 먹기 위해 학교를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점심 시간에는 친구들과 패점에서 아이스크림이랑 음료수를 사 먹었다. ㅎㅎ 급식을 잘 먹고 즐겁게 여유를 느꼈다. 5교시는 진직 시간이다. 스트리머에 대해서 배웠다. 스트리머는 유튜브 같은 곳에 영상을 올리는 크리에이터이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6교시가 시작되었다. 6교시와 7교시는 같다. 자율동아리 시간이다. 나는 연극부이다. 연극은 역시 재미있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시간이 부족해서 선생님이 준비하신 게임을 오래하지는 못했다. 6,7교시가 끝난 후에는 지옥이 시작된다. 내 청소 구역은 복도 청소이다.

나는 내 방 청소도 잘 안하는데 그래도 신난다. 왜냐하면... 청소가 끝나면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종례를 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간다. ㅎㅎ 나의 학교생활은 너무 너무 재미있다!. 끝~

OKNP(옥구중신문부)를 소개합니다



참여대상

옥구중학교 소속 누구나(학생, 선생님 모두)

모집작품

시, 소설, 수필, 사진, 만화, 감상문 등등 개인 창작물 모두

지원방법

(도덕 선생님) 구지연 선생님, 또는 OKNP 부원에게 제출

OKNP 부원

회장 : 남궁지영 부회장 : 임지완
(최다희, 강성준, 소훈성, 김윤비, 이원, 박시찬)

남궁지영-옥구중 신문부 OKNP는 모든 학년들이 골고루 모여서 다같이 신문을 만드는 동아리입니다. 제가 신문부를 하면서 하고 싶은 역할은 저의 능력을 뽐내면서 저의 글로 인해서 옥구중학교 학생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글을 쓰는 역할을 맡고 싶습니다.

최다희-처음으로 학교에서 학생 주관으로 발행되는 신문이라 뭔가 많이 참여해보고 싶었는데 글 하나밖에 못 쓴 게 아쉬웠습니다. 다음에는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번보다 더 열심히 하는 부원이 되고 싶습니다. 임지완-인터뷰를 하는데 다들 긍정적이어서 편하게 할 수 있었다. 다음에는 더 성숙한 모습의 기자가 되고 싶다.

강성준-옥구중학교 신문부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호기심에 들어간것도 조금 있지만 신문부가 학교에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하나학생의 의견을 들어보고, 투표와 인터뷰도 해보며 느꼈다. 아직은 조금 모자란 티가 나지만 조금씩이라도 노력하면 옥구중학교에 꼭 필요한 부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윤비-학생들이 처음으로 만든 신문이라 많이 부족할 수 있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서 좋은 신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문만드는 일이 처음이라 많이 서툴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 하고나니 뭔가 뿌듯하고 기분이 좋다.

소훈성-글쓰는게 어려웠지만 좋은 경험이었다.

박시찬-다음 신문에서는 더 열심히 참여해 보고 싶다.

이원-이번엔 많은걸 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다음에는 더 많은 학교의 재밌는 일들을 학생, 선생님들께서 신문 쪽으로 시선이 갈 수 있도록 만들고, 저도 신문을 만들면서 재밌게 신문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담을 사진들을 찍어 신문을 더 재밌게 만드는 역할을 맡고 싶습니다.

"No idleness, no laziness, no procrastination."

총편집: 구지연 선생님 발행일: 2021년 5월 10일